

# 1 언어의 본질

## 학습 목표

- 언어의 본질인 언어의 자의성, 사회성, 역사성, 창조성을 이해 한다.
- 언어의 본질을 바탕으로 국어 생활을 한다.

언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언어는 어떤 기능을 할까요? 늘 우리 곁에 있어서 그 중요성을 못 느끼지만 언어는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 중의 하나는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언어를 통하여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사회생활을 해 나갑니다. 문화를 만들고 다음 세대로 이어주는 것도 언어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언어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언어의 본질을 몇 가지 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본다면 언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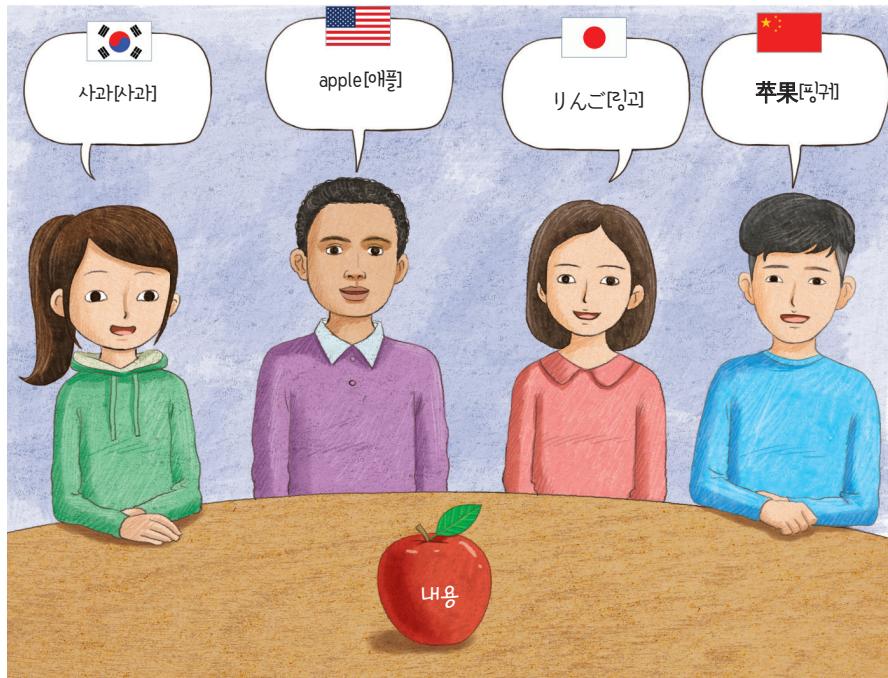
그럼, 언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언어의 특성을 하나씩 살펴 볼까요?

본질이란 본디부터 가지고 있는  
사물의 성질이나 모습을 말해

### 1. 언어의 자의성

언어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과 그것을 실어 나르는 형식이 결합하여 이루어 집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뜻’이고, 형식은 ‘말소리’입니다.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 합니다. 그런데 왜 언어권마다 말소리가 다를까요?



### 개념 풀리스\*

#### 언어의 본질

언어란 자신이 가진 생각이나 느낌을 음성, 문자로 표현하는 수단이자 체계를 말해요. 일반적으로 언어의 본질을 드러내는 언어의 특성으로 언어의 자의성, 사회성, 역사성, 창조성이 있어요.

#### (4) 관계언

홀로 쓰일 수 있는 단어(주로 체언)에 결합하여 일정한 문법적 관계를 갖게 하는 기능을 하는 품사를 관계언이라고 해요. 관계언에는 〔조사〕가 있어요.

##### ① 조사

조사는 홀로 쓰이지 못하고 항상 다른 단어에 붙어 쓰이기 때문에 독립성이 없다는 특징이 있어요. 조사가 하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 (가) 문법이 재미있다.
- (나) 나는 문법을 좋아한다.

(가)에 쓰인 조사 ‘이’는 명사 ‘문법’에 붙어 ‘재미있다’의 주어를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에 쓰인 조사 ‘을’은 명사 ‘문법’에 붙어 ‘좋아하다’의 대상을 나타내게 하지요. 이들은 모두 문장 속에서 다른 말과 어떤 관계를 맺는 것에 문법적으로 관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관계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 (다) 나는 문법만 좋아한다.
- (라) 나는 문법도 좋아한다.
- (마) 나는 문법까지 좋아한다.
- (바) 나는 문법조차 좋아한다.

앞에서 (가)와 (나)의 밑줄 친 조사는 특별한 뜻은 없으면서 다른 말과의 관계만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반면, 위의 (다)~(바) 문장에 쓰인 조사 ‘만’, ‘도’, ‘까지’, ‘조차’는 특별한 뜻이 더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지요. 이와 같이 앞말에 특정한 뜻을 더해서 보다 정밀한 표현을 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조사들도 있어요.

 **7개념**  
— 알쏭·달쏭 —

**‘이다’는 다른 조사와 달라요.**

조사의 특성 중 중요한 점은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조사 ‘이다’는 다른 조사들과는 달리 문장 안에서 활용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다’는 서술격 조사라고 해**

이것은 책이고 저것은 공책이다.

위 문장에서 ‘이다’는 ‘이고, 이다’ 등과 같이 형태가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은 다른 조사에서는 볼 수 없는 특성이에요. 하지만 ‘이다’는 홀로 쓰이지 못하고 체언에 붙어 쓰인다는 점 때문에 조사로 보고 있어요.



##### +tip

‘이/가’는 앞말이 주어임을 나타내고, ‘을/를’은 앞말이 목적어임을 나타냄. 이외에도 조사는 ‘와/과’, ‘랑’, ‘의’, ‘처럼’, ‘이다’ 등이 있음.

##### 개념 플러스\*

‘만’은 오직, ‘도’는 역시, ‘까지’와 ‘조차’는 포함의 의미를 나타내요.

##### 개념 확인

8.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관계언은 주로 ( )에 결합하여 일정한 문법적 관계를 갖게 하는 기능을 한다.

9. 다음 내용에 맞으면 ○, 틀리면 × 표 하시오.

조사는 홀로 쓰일 수 있다.  
(○, ×)

# 기온·문제

정답과 해설 2쪽

◆ 출제 예감 95%

## 1 언어의 본질에 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 ① 사회성: 언어는 당대의 사회 모습을 반영한다.
- ② 역사성: 언어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
- ③ 창조성: 언어는 인간이 마음대로 바꾸어 말하여 도 상관 없는 것이다.
- ④ 규칙성: 언어는 모든 언어권에서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하는 약속이다.
- ⑤ 자의성: 대상을 가리키는 말소리와 대상의 사이에는 필연적인 연관이 없다.

◆ 고과서 문제

◆ 출제 예감 85%

## 2 다음에 나타난 단어들의 관계 속에서 알 수 있는 언어의 본질로 알맞지 않은 것은?

- 한국어: 나무[나무]
- 영어: tree[트리]
- 베트남어: cây[꺼이]



- ① 뜻은 같지만 각 언어마다 말소리가 다르다.
- ② 인간은 새로 배운 단어로 무한한 문장을 만들 수 있다.
- ③ 나무가 지닌 뜻과 말소리 [나무]의 결합은 우연적이다.
- ④ 한국어 [나무]가 가리키는 대상은 베트남어 [꺼이]와 같다.
- ⑤ 같은 의미를 가리키는데 언어에 따라 다른 말소리를 내는 언어의 특성에 해당한다.

◆ 출제 예감 85%

## 3 ◆ 보기◆와 관련 있는 언어의 본질로 알맞은 것은?

◆ 보기 ◆

‘살우비’는 화살통을 덮어 두던 덮개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지만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다.

- ① 규칙성
- ② 자의성
- ③ 사회성
- ④ 역사성
- ⑤ 창조성

◆ 고과서 문제

◆ 출제 예감 95%

## 4 ◆ 보기◆와 같은 언어의 본질을 드러내는 예로 알맞은 것은?

◆ 보기 ◆

아이가 말을 배우는 과정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몇 개의 낱말만을 따라 하다가 어느 시점이 지나면 말하는 목적이나 상황에 맞게 스스로 다양한 문장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 ① [나모]가 [나무]로 소리가 변했다.
- ② 인간은 ‘꽃’이라는 단어를 이용하여 무수한 문장을 만들 수 있다.
- ③ ‘자전거’라는 대상을 [자전거]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약속이다.
- ④ 옛날에 ‘백(百)’을 의미하던 ‘온’이라는 말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
- ⑤ 집을 우리는 [집]이라고 하지만 영어에서는 [하우스(house)]라고 한다.

◆ 출제 예감 80%

## 5 언어의 사회성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알맞은 것은?

- ① 뜻과 말소리 사이에 필연적인 관련성이 생긴다.
- ② 대화가 통하지 않아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 ③ 한정된 단어만을 사용하여 의사소통에 한계가 발생한다.
- ④ 모든 나라의 언어가 동일해져 각 언어가 지니고 있는 문화가 사라진다.
- 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언어의 뜻과 말소리의 관계에 관한 사회적 약속이 변한다.

◆ 출제 예감 90%

## 6 다음 단어들을 사용하여 언어의 역사성을 설명하려고 한다. 이 단어들과 함께 묶이기에 알맞은 것은?

얼굴, 놈, 영감

- ① 꽃
- ② 미르
- ③ 즈믄
- ④ 불휘
- ⑤ 어엿븐



## 심화 ▶ 문제

정답과 해설 3쪽



◆ 출제 예감 90%

- 1 ॥보기॥에서 정답을 ‘무지개’라고 말하는 이유를 언어의 본질과 관련하여 설명한 것으로 알맞은 것은?

॥ 보기 ॥

사회자: 비 온 뒤에 공중에 떠 있는 물방울이 햇빛을 받아 나타나는 일곱 빛깔의 줄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학생들: 정답! 무지개!

- ① 그 사회에서는 ‘무지개’라고 부르기로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 ② ‘무지개’라는 이름을 붙인 데에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
- ③ ‘무지개’라는 단어도 처음에는 누군가가 만들어 낸 소리이기 때문이다.
- ④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순간 ‘무지개’라고 바꿔 부르게 되었기 때문이다.
- ⑤ ‘무지개’라는 단어를 배운 학생들은 그 단어를 넣어서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 2 ॥보기॥에서 언어의 역사성을 알 수 있는 말을 찾아 분류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 보기 ॥

속담에 ‘길로 가라니까 뵐로 간다’더니만 편한 방법이 있는데도 고집이 세기가 미르 고집이구나. 인터넷이 보편화된 세상에서 컴퓨터나 휴대 전화를 두고 손으로 쓰겠다니 세종 대왕께서 보시면 어엿 브고 어리다고 하시겠다.

- ① ‘뵈’, ‘미르’는 예전에 사용하다가 사라진 말이다.
- ② ‘어엿브고’, ‘어리다’는 의미는 그대로지만 말소리가 변한 말이다.
- ③ ‘인터넷’, ‘컴퓨터’, ‘휴대 전화’는 예전에 비해 의미가 확대된 말이다.
- ④ ‘길’, ‘휴대 전화’는 새로운 사물이나 문화가 나타나면서 생긴 말이다.
- ⑤ ‘고집’, ‘세상’은 예전에 사용하던 의미와 현대에 사용하는 의미가 달라진 말이다.

◆ 출제 예감 90%

- 3 다음 글에서 남자가 인정한 언어의 본질과 남자가 어긴 언어의 본질로 알맞은 것은?

프랑스 사람들은 침대를 ‘리’라고 하고 책상을 ‘타블’, 그림을 ‘타블로’, 그리고 의자는 ‘쉐즈’라고 한다. 그러면서도 서로 다 알아듣는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말이 통한다.

“어째서 침대를 사진이라고 부르지 않느냐는 말야.” 남자는 그렇게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런 다음 웃음을 터뜨렸는데, 이웃들이 벽을 두드리며 “조용히 합시다.” 하고 고함지를 때까지 그는 웃고 또 웃었다.

“이제 달라질 거야.” 이렇게 외치면서 그는 이제 부터 침대를 ‘사진’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 페터 빅셀, 「책상은 책상이다」

인정한 언어의 본질	어긴 언어의 본질
① 언어의 자의성	언어의 규칙성
② 언어의 역사성	언어의 규칙성
③ 언어의 자의성	언어의 사회성
④ 언어의 창조성	언어의 역사성
⑤ 언어의 규칙성	언어의 사회성

- 4 ॥보기॥의 밑줄 친 단어에서 알 수 있는 언어의 본질에 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 보기 ॥

⑦ •공을 차다      •밤이 차다

⑧ ‘연필’을 가리키는 말로 우리나라에서는 [연필], 영국에서는 [펜슬(pencil)]이라고 한다.

- ① 인간은 새로운 말을 무한하게 만들 수 있다.
- ② 언어의 내용과 형식 사이에는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
- ③ 언어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약속이다.
- ④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성, 소멸하며, 말 소리와 뜻이 변하기도 한다.
- ⑤ 언어의 작은 단위를 결합하여 더 큰 단위를 만드는 과정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다.



# 1. 언어의 본질

## 학습 포인트

### 1. 언어의 자의성

- 언어의 내용(의미, 뜻)과 언어의 형식(말소리)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없음.
  - 절대적이지 않고 자의적으로 성립되기 때문에 다양한 언어가 존재함.
- 예) '사과나무에 열린 빨갛고 둥그란 열매'를 부를 때  
한국어-[사과], 영어-[애플(apple)], 일본어-[링고(りんご)]

#### (1) 자의성의 증거

- 동의어가 존재함. 예) 호랑이 = 범
- 동음이의어가 존재함. 예) 배 1(신체), 배 2(탈 것), 배 3(과일)
- 지역 방언이 존재함. 예) 빈대떡(표준어), 빈자떡(방언)
- 시간이 흐름에 따라 말의 소리와 뜻이 바뀜.

#### (2) 의성어와 자의성

의성어는 소리와 뜻의 관계가 자의적이지 않고 어느 정도 필연적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같은 뜻의 의성어도 나라마다 소리가 같지 않다는 점에서 자의성의 예외가 될 수 없음.

##### 예) 닭의 울음소리

한국어-[꼬끼오], 영어-[카커두들두(cock-a-doodle-doo)], 일본어-[꼬께꼭꼬(コケコッコー)]

### 2. 언어의 사회성

- 언어의 말소리(형식)와 뜻(내용)의 관계는 사회적으로 약속되어 있음.
  - 사회 구성원들이 정한 약속인 언어를 개인이 마음대로 바꾸면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개인 마음대로 바꿀 수 없음.
- 예) '연필'을 개인이 마음대로 '지우개'라고 바꾸어 부를 수 없음.

#### 언어의 사회성과 자의성의 관계

언어의 뜻과 말소리의 결합은 자의적이지만, 그 언어를 사용한 사람들이 특정한 의미를 특정한 말소리로 표현하자고 약속한 후에는 개인이 그 약속을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음.

### 3. 언어의 역사성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바뀜에 따라 의미와 소리가 변하기도 하고, 새로 생겨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언어의 특성을 말함.

#### (1) 언어의 의미 변화 유형

의미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수'는 옛날에 '손을 씻다'라는 의미로만 사용되었지만 지금은 '얼굴을 씻다'는 의미로 사용되면서 의미가 확대됨.</li> <li>'지갑'은 옛날에 '종이로 만든 것'이라는 의미만 있었지만 지금은 '헝겊이나 가죽으로 만든 것'도 포함되면서 의미가 확대됨.</li> </ul>
의미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얼굴'이 옛날에는 '몸 전체'를 뜻하는 말이었지만 지금은 '낯'이라는 의미로만 사용되면서 의미가 축소됨.</li> <li>'놈'은 옛날에 '사람'을 부르는 말이었지만 지금은 '남자를 낮추어 이르는 말'로 의미가 축소됨.</li> </ul>
의미 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린'은 옛날에 '어리석은'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지금은 '나이가 어린'으로 의미가 이동함.</li> <li>'어엿본'은 옛날에 '가엾은'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지금은 '예쁜'으로 사용되면서 의미가 이동함.</li> </ul>

#### (2) 언어의 소리 변화, 생성, 소멸 양상

- 언어의 소리 변화: 예) 꽃 → 꽃
- 언어의 생성: 옛날에 없던 단어가 새롭게 생겨남.  
예) 맞벌이, 컴퓨터, 스마트폰
- 언어의 소멸: 시간이 흐르면서 사라지는 단어가 있음. 예) 즈믄(천), 미르(용)

### 4. 언어의 창조성

- 한정된 말소리로 수많은 단어를 만들고, 단어의 나열을 통해 무한한 수의 문장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언어의 특성을 말함.
- 인간과 동물을 구별해 주는 가장 큰 특징임.  
예) '밥을 먹다.'라는 문장과 '빵'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을 때, '빵을 먹다.'라는 새로운 문장을 만들 수 있음.





## 01 언어의 본질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언어의 본질		설명
①	자의성	언어는 형식과 내용의 관계가 필연적이지 않다.
②	사회성	언어는 개인이 마음대로 바꾸어 사용할 수 없다.
③	역사성	오늘날에는 옛날에 없던 단어가 새롭게 생겨나기도 한다.
④	역사성	언어의 소리와 뜻의 관계는 한번 정해지면 바뀌지 않는다.
⑤	창조성	한정된 말소리로 새로운 말을 무한하게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 02 『보기』의 내용과 관련된 언어의 특성으로 알맞은 것은?

『보기』

닭의 울음소리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꼬끼오]로 말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카커두들두]로, 일본 사람들은 [꼬께꼭꼬]로 말한다.

- ① 언어의 사회성      ② 언어의 자의성
- ③ 언어의 역사성      ④ 언어의 창조성
- ⑤ 언어의 경제성

## 03 『보기』를 근거로 쓸 수 있는 언어의 특성으로 알맞은 것은?

『보기』

언어의 소리와 뜻의 관계로 인해서 여러 의미를 지닌 대상을 같은 소리로 표현할 수 있다.

- ① 언어의 자의성      ② 언어의 사회성
- ③ 언어의 역사성      ④ 언어의 창조성
- ⑤ 언어의 규칙성

## 04 『보기』의 ㉠과 ㉡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보기』

🍎를 한국어에서는 [사과], 영어에서는 [애플(apple)]이라고 부르고, 일본어로는 [링고(りんご)], 중국어로는 [핑궈(萍果)]라고 부른다. 이처럼 ㉠ (와)과 ㉡ 의 관계가 필연적이 아니라는 것을 언어의 자의성이라고 한다.

	㉠	㉡
①	의미	규칙
②	언어	규칙
③	기능	말소리
④	말소리	시간
⑤	말소리	의미

## 05 '언어의 사회성'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언어는 인간의 사회 협동을 가능하게 한다.
- ② 사회적으로 약속된 언어를 바꾸어 부르면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다.
- ③ 언어의 사회성 덕분에 이 세상에는 다양한 언어가 존재할 수 있다.
- ④ 다른 사람과 갈등이 생길 때 언어를 통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 ⑤ 언어의 말소리(형식)와 뜻(내용)의 관계는 사회적으로 약속되어 있다.

## 06 『보기』에서 '나래'가 다음과 같은 반응을 한 이유와 관련된 언어의 본질을 쓰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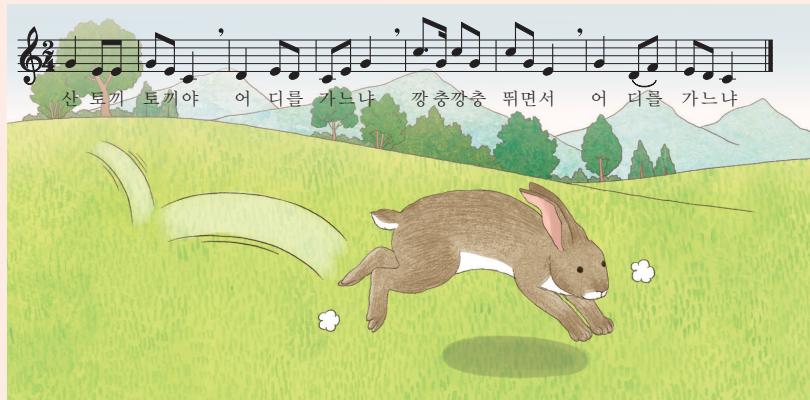
『보기』

민호: (식탁 위에 놓인 사과를 가리키며) 나 거기 있는 바나나 좀 줘.

나래: (무슨 말인지 몰라 당황해 하며) 응?

# 사고력 × 확장

## ① 발음이 변하면 표기도 변할 수 있어요.



국어에는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을 통해 올바르게 말하고 쓰는 원칙들을 규정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규정된 내용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말하는 관습이 변하면 그 내용이 바뀔 수도 있어요. 즉 표기의 방법이 달라질 수도 있고, 표준어보다 더 자주 사용되는 말들을 표준어로 인정하게 될 수도 있답니다. 우리가 현재 국어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은 1933년에 제정된 ‘조선어 학회’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1936년에 제정된 <조선어 표준말 모음>을 근간으로 하여, 1988년에 이를 개정하여 새로이 정해진 것 이에요. 이때에도 50여 년 동안의 국어의 변화를 반영해서 새롭게 규정을 만든 것이지요.

위 만화에서 ‘깡총깡총’도 1988년에 ‘깡충깡충’으로 표준어 규정이 바뀐 거랍니다.

우리가 쓰는 말은 계속 변화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새롭게 표준어가 되거나 표기의 방법이 바뀌게 되는 말들이 계속 생기게 될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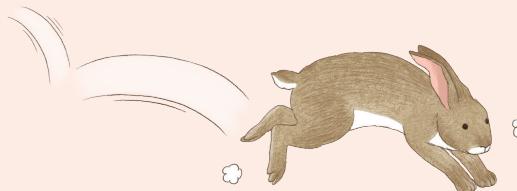
그렇다면 지금까지 바뀐 표준어들을 살펴볼까요?

〈2011년부터 표준어로 인정된 단어의 예〉

추가 인정된 표준어	그전까지의 표준어
간지럽히다	간질이다
맨날	만날
허접쓰레기	허접스레기
개발새발	괴발개발
나래	날개
메꾸다	메우다
어리숙하다	어수룩하다
두리뭉실하다	두루뭉술하다
오손도손	오순도순
짜장면	자장면

〈2014년부터 표준어로 인정된 단어의 예〉

추가 인정된 표준어	그전까지의 표준어
굽신(거리다)	굽실(거리다)
빼지다	빼치다
개기다	개개다
꼬시다	꾀다(꼬이다)
딴지	딴죽
설赜(하다)	설뜩(하다)



2014년에 표준어로 인정된 단어는  
총 13개야. 나머지 7개도 찾아볼까?